

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 개 회 사

2015. 5. 28 (목) 09:30~09:4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임 종 룡

## 1.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Andrew Bailey PRA(건전성감독청) 청장님,**  
그리고 영국 정부 당국자와 금융인 여러분,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먼 길을 오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국과 한국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과

이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신  
**신성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방영을 계기로**  
작년 런던에서 **한·영 두 나라의 민과 관이**  
**금융협력 증진이라는 목표아래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 한영 금융협력 포럼이 오늘 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양국간 금융협력 정례화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2. 한-영 금융 협력의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저금리 등이 고착화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은  
여러 가지 금융사고로 인해  
국민과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실물경제의 지원 확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수한 인적자원, 개방된 플랫폼,  
확고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유연한 규제체계 등  
소프트파워를 앞세워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높여오면서도

끊임없이 금융감독 체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IT 등 제조업과 산업·기술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금융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이 서로 도우며 협력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도전의 물결을  
기회의 물결로 바꾸어

양국의 금융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4월 창설된 한·영 금융협력포럼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그 실천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를 하나둘 만들어 나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 위안화 금융중심지정책 추진, 영국벤처캐피탈·연기금이 참여 글로벌  
파트너쉽펀드 결성 등

이번 제2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방안 4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3. 한국 분야의 양국 협력

---

(1) 첫 번째는 금융개혁 관련 협력입니다.

한국 금융산업은  
저금리와 고령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한 수익원 창출의 한계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 감독당국의  
불합리한 규제·감독과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행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개혁을 성공시킬 적기(適期)라고 생각하고

“자율책임문화 정착”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의 경쟁 제고”라는

금융개혁 3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영국과 금융감독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2) 두 번째 제안은 핀테크 산업의 육성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IT와 금융의 융합,  
즉 핀테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3년 약 40.5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핀테크 산업 투자규모는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였고,

IT 기업의 핀테크 시장 진출은  
송금, 대출, 자산운용 등  
전통적 금융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우수한 IT 인프라 등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정부간 소통부족,  
오프라인 중심의 경직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속도가 다소 더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방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입니다.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하고,  
자금조달의 애로를 해소하며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는 “보다 편리하고, 새롭고, 저렴한  
국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개발 유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비대면 실명확인, 클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및 온라인 보험판매채널 등과  
관련한 변화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셋째는 “핀테크 인프라 구축”입니다.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체계를 확립하며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과  
우수한 인력, 높은 자본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투자건수 : '08년 이후 매년 74% 성장(세계 평균 27%, Silicon Valley 지역 13%)  
투자규모 : '08년 이후 매년 51% 성장(세계 평균 26%, Silicon Valley 지역 23%)

특히 영국은 작년 8월 **범정부적으로**  
**핀테크 산업과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핀테크 육성을 통한 금융 혁신과 비용 절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영 민관합동 금융협력포럼이  
당국간에 핀테크 육성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한국 핀테크 기업과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여온 영국 핀테크 기업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세번째 제안은 곧 설립될 AIIB와 관련한 협력입니다.**

한국 정부는

금융산업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AIIB 가입을 계기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2013년)의

건설·플랜트 수출국입니다.

신수익원 발굴에 목마른 한국 금융회사와

인프라금융의 전통적 강자인 영국 금융회사,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한국 건설회사가

협업한다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AIIB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  
아시아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영 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4) 네번째는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과 관련한 협력입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선제적으로 위안화 금융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영국도 전세계 외환거래의 2/3를 차지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지렛대로 삼아,

위안화 역외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달리,  
한국의 위안화 중심지 추진 전략은  
한·중간 무역거래를 통한  
실물 경제에 기반하는 중심지 전략입니다.

양국의 전략이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중심지 정책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 4. 맺음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금융 개혁,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 및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양국의 다양한 공통 현안과 협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양국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주치고(collision), 서로 배우고(co-learning),  
연결되면(connectedness)  
혁신이라는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국 금융관계자들이  
오늘의 단발성의 만남을 넘어  
상시적으로 서로 만나 경험을 공유한다면

우리의 협력 관계가  
가시적인 성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국은 10년 전, 제가 駐英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곳으로  
저에게 매우 각별한 나라입니다.

당시 영국의 금융과  
금융감독체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은 선진 금융시스템을 갖추어  
금융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바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한영 금융협력포럼이 저에게 더욱 반갑고  
의미있는 행사인 이유입니다.

『로마제국 쇠망사』를 쓴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고 하였습니다.

양국 금융인이  
건설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은다면

한·영 양국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긴 여정에서  
오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